

남북 역사 분야 전문용어의 이질화 양상

전은진* · 신종진**

〈차 례〉

1. 서론
2. 연구 범위 및 방법
3. 남북 역사 분야 전문용어의 이질화 양상
4. 결론: 남북 용어 통합을 위한 제언

[국문초록]

이 연구는 남북 역사 분야 전문용어의 이질화 양상을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남북 역사 교과의 전문용어를 분석하는 이 연구는, 궁극적으로 남북 용어를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용어를 표준화하고 남북 통합 교육과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최종 목표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남북 역사 교과서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중심으로 남북 용어의 이질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역사적 인물과 관련된 용어에서는 남북측이 동일하게 사용하는 용어가 가장 많았고, 두음 법칙에 따른 차이를 보이거나 남북측이 서로 다른 형태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역사적 사물과 관련된 용어는 도구, 무덤, 탑, 불상, 유적지 등에서 차이가 두드러졌다.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용어에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북측은 투쟁 중심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과서 내용이나 분량 면에서도 북측이 남측보다 역사적 사건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고, 남측에서 '난' 또는 '운동'으로 표현되는 사건들을 북측에서는 '투쟁, 전쟁, 폭동'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주제어] 역사, 교과서, 전문용어, 이질화, 남측, 북측

* 한양대학교 부교수(주저자)

** 한양대학교 교수(교신저자)

1. 서론

이 연구는 남북 역사 분야에 사용된 전문용어를 분석하여, 남북 용어의 이질화 양상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남북의 언어는 짧지 않은 분단 기간 동안 상당히 이질화되어 왔다. 이로 인하여 교육 영역뿐만 아니라 정치 및 경제 교류나 통일 시대의 의사소통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 언어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남북 통합 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질화된 남북 용어의 통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남북 교과서를 중심으로 전문용어의 이질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반세기 이상을 서로 다른 정치 이념과 사회 제도 속에 살아온 남과 북은 역사 인식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모습은 특히 역사 교과서에 잘 반영되어 있다. 역사 교과서는 국가관, 민족사의 방향, 국민 교육의 지표 등을 제시하고 있어 다른 교과서와는 의미를 달리한다. 따라서 역사 교과서에 사용된 용어의 이질화 양상을 살펴보면 남과 북이 이념, 제도, 역사관 등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다. 역사 교과서가 특히 더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는 이유는 이미 사라져 버린 우리의 과거가 역사 교육을 통해 후손들에게 계승되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 교과서를 분석하면 남과 북이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이질화되어 왔는지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남북 역사 교과서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에서 형태가 다른 남북 대응어를 중심으로 남북 역사 용어의 이질화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1) 남북 역사 용어의 범위

남북의 역사 관련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남과 북 모두 『역사』 교과를 따로 배우지 않는다. 남측에서는 『사회』 교과에서 ‘정치, 법, 경제, 역사’ 등의 내용을 가르치고 있고, 북측에서는 『사회주의 도덕』 교과에서 ‘사회주의’와 관련한 내용만 포함하여 가르치고 있다. 위의 내용을 고려했을 때, ‘역사’ 교과를

따로 두어 가르치고 있는 중등 교육과정에 집중하여 ‘역사 용어’를 추출하고 비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남북 역사 용어를 추출하고자 한다.

북한의 교육과정(초급·고급 중학교 과정) 중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력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혁명력사』,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 혁명력사』 등의 교과가 있다. 이 교과들 중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력사』는 김일성의 항일 투쟁 역사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정치 사상적 내용이 근간을 이루고 있으므로 본 연구의 범위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남측과 북측은 해방 이후 서로 다른 체제를 유지하며 지내왔다. 이는 남과 북이 공유하고 있는 역사가 아니므로 역사 용어 통합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2) 남북 역사 용어의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는 남북 역사 분야 전문용어의 이질화 양상을 고찰하기 위하여 남북의 교과서를 하나하나 살펴봄에 용어를 추출하였다. 그 외에도 교과서 편수 자료, 사전 등을 참고하였다. 먼저 남측 자료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남측 자료 목록

분류	교육과정	자료명	출판사	출판년도
교과서	중학교	역사①	천재교육 외	2018
		역사②	천재교육 외	2018
	고등학교	한국사	천재교육 외	2018
	초·중·고	편수 자료 II	교육부	2017
사전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우리말샘	국립국어원	2016
참고 자료		남북 역사용어 및 영문표기 기초조사	국사편찬위원회	2002
		남북 교과서 학술용어 비교 연구	국립국어원	2007

이 연구는 중학교 과정의 『역사 1, 2』, 고등학교 과정의 『한국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하였다. 또한 교육부에서 펴낸 『편수 자료 II』도 참고하였다. 편수 자료는 교과 전문용어들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다.¹⁾ 이 연구에서는 남북의 대응 용어를 중심으로 이질화 양상을 분석하므로, 대응 용어를 확인하기 위하여 뜻풀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국가에서 펴낸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을 활용하였다. 그 밖에 참고 자료로 2002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펴낸 『남북 역사용어 및 영문표기 기초조사』와 2007년 국립국어원에서 펴낸 『남북 교과서 학술용어 비교 연구』를 활용하였다.²⁾ 다음은 복측 자료 목록이다.

<표 2> 복측 자료 목록

분류	교육과정	자료명	출판사	출판년도
교과서	초급중학교1	조선력사	교육도서 출판사	2013
	초급중학교2	조선력사		2014
	고급중학교1	력사		2013
	고급중학교2	력사		2014
	초급중학교1	조선력사 교수참고서		2013
	고급중학교1	력사교수참고서		2014
	중학교1	조선력사		2008
	중학교4	조선력사		2008
	중학교6	조선력사		2008
사전	광명백과사전_조선의 력사	조선백과사전편찬위원회 편	2007	
사전	조선말대사전 (증보판)	사회과학 출판사	2006	

1) 편수 자료는 교과서에서 사용해야 하는 용어를 제시하고, 교과서와 관련된 각종 제도에 대한 안내서 역할을 한다. 따라서 편수 자료에 수록된 용어는 표준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편수 자료는 색인 용어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심의와 검토를 거친 엄선된 용어들이라는 점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2) 두 연구 모두 실제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역사 용어를 제시하고 있어 남측의 용어와 비교가 용이하다.

북측의 자료 역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교과서이다. 북측 자료는 국가 기관인 북한 자료센터, 국립국어원에서 수집할 수 있었다. 북측의 사전들은 『조선말대사전』과 『광명백과사전』을 확보하여 사용하였다. 『조선말대사전』의 경우, 남측의 『표준국어대사전』과 마찬가지로 국가 기관의 주도로 만들어진 규범 사전이다. 그러므로 대표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광명백과사전』은 가장 최근에 북측에서 만들어진 백과사전이다. 이 사전은 ‘북한역사, 정치, 법, 어학’ 등 인문·사회과학 및 자연과학 분야를 전체 20권으로 나누어 2010년에 완간되었다. 해당 분야의 전반적인 지식 체계를 담고 있는 총체로서 표준화된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데에 큰 가치가 있다.

남북 역사 분야 전문용어의 추출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먼저 남측 교과서 및 편수 자료에서 역사 용어를 추출하였다. 자료로 선정된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며 역사 용어를 추출하였다. 다음 단계로 추출한 용어를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샘』을 통해 뜻을 풀이를 찾고, 전문가 자문 및 검토 작업을 진행하였다.³⁾

다음은 북측의 대응 용어를 찾는 작업으로, 먼저 북측 교과서를 하나하나 읽어가며 북측 대응 용어를 추출하였다. 대응 용어인지 정확히 판단하기 위하여 사전의 뜻을 풀이를 참고하였다. 북측 교과서에서 대응 용어를 찾지 못한 경우에는 『남북 역사 용어 및 영문표기 기초조사』를 참고하였다. 2002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펴낸 『남북 역사용어 및 영문표기 기초조사』는 각 시대별로 전문가가 역사 용어를 추출하고 북측의 대응 용어를 확인하였으므로 신뢰할 만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남북 역사 분야 전문용어를 추출하고 대응어 목록을 확정하였다.

3. 남북 역사 분야 전문용어의 이질화 양상

1) 남북 역사 분야 전문용어의 유형

남북 역사 분야 전문용어는 남북 용어의 일치 정도에 따라 ‘AA형’, ‘Aa형’, ‘AB형’

3) 전문가 자문 및 검토 작업을 마친 후에 최종적으로 남측 전문용어 4,000개가량이 확정되었다.

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같은 개념에 대해서 양측이 동일한 형태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AA형, 어문 규범만 다르고 같은 형태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Aa형, 다른 형태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AB형으로 분류하였다. 큰 틀에서 보면, Aa형은 AA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⁴⁾

남측과 북측이 대응되는 용어는 총 2,049개가 분석되었다. 다음의 표는 각 유형을 예와 함께 제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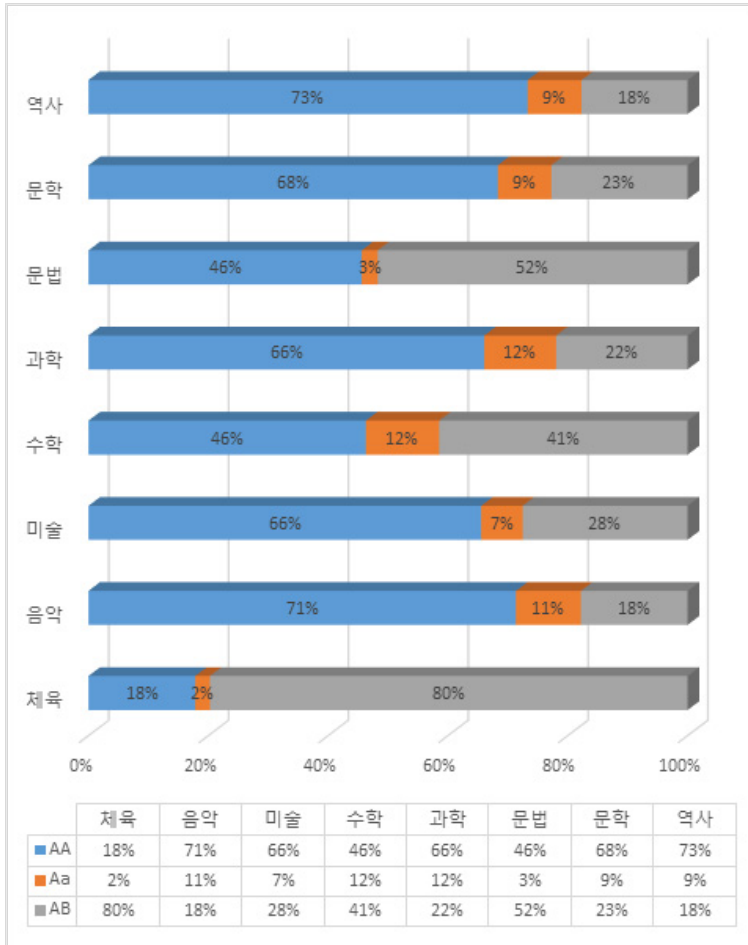
<표 3> 남북 역사 분야 전문용어의 유형

유형		예(남-북)	개수 (백분율)
AA	AA	경학사-경학사, 공노비-공노비, 외거노비-외거노비	1,503개 (73%)
	Aa	낙랑-락낭, 미쓰야협정-미쯔야협정, 난징조약-남경조약	183개 (9%)
AB		무용총-춤뭉, 간접떼기-대고떼기, 살수대척-살수싸움	363개 (18%)

AA형과 Aa형은 남북의 전문용어가 동일 개념에 대해 동일한 형태를 가진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역사 분야에는 이러한 유형이 1,686개에 달한다. 그리고 동일 개념에 대해 상이한 형태를 보이는 AB형은 363개가 출현하였다. 이 결과, 남북 역사 용어는 82%에 가까운 일치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역사 용어는 남북이 상당히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결과를 신중진 외(2015~2019)에서 연구한 다른 교과와 비교해 보면 <그림 1>과 같다. AB형 비율이 가장 높은 교과는 ‘체육 > 문법 > 수학 > 미술 > 문학 > 과학 > 음악 = 역사’ 순으로 나타났다. 예상과 달리, 역사 교과에서는 남북측 대응 용어들이 상당한 일치를 보여 AB형의 비율이 매우 낮은 편이었다. 체육 교과는 다른 교과와 달리, 남북 용어의 이질화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용어의 비경제성과 어휘 정체성에 따른 쉬운 말화의 영향으로 보인다. 체육은 다른 분야보다 ‘헤드퍼스트 슬라이딩(남) -

4) Aa형에 포함되는 용어들은 ‘외래어 표기, 두음법칙, 음 표기’ 등에 의해 차이를 보이는 것들이다. 외래어 표기 방식이 달라 차이를 보이는 용어는 ‘가쓰라-가쯔라, 다카마쓰무덤-다까마쯔무덤, 러일전쟁-로일전쟁, 이토히로부미-이또히로부미’ 등이 있으며, 두음 법칙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 용어는 ‘나당연합군-라당련합군, 노동계급-로동계급, 양반-량반, 여진족-녀진족’ 등이 있었다. 그 밖에 음의 표기 방식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용어로는 ‘난징조약-남경조약, 텐진조약-천진조약, 헤이허사변-혹허사변’ 등이 있었다.



<그림 1> 교과별 남북 전문용어의 유형

머리로부터미끄러져진으로들어가기(북), 스프링보드다이브(남) - 탄성관물에뛰어들기 경기(북) 등의 긴 용어들이 많아 용어의 경제성이 낮은 편이어서 남북이 일치도를 보이기 쉽지 않다. 또한 북측은 남측보다 ‘라이트훅(남) - 오른손엮으로치기(북), 스트라이크아웃(남) - 타격수실격(북), 슈팅포지션(남) - 놓기위치(북), 스타팅플레이어(남) - 경기첫시작선수(북), 스탠딩드리블(남) - 서서물기(북)’ 처럼 외래어보다 한자어를 선호하고, 한자어보다 고유어를 선호하는 ‘어휘 정체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

며, 이는 용어를 고유어로 쉽게 풀어서 사용하려는 쉬운 말화 현상과도 연관된다. 역사 교과에서도 ‘몽유도원도-꿈에본동산, 송하보월도-달밤에소나무밑을거닐며’ 처럼 이러한 특징은 드러난다. 그러나 체육 교과처럼 긴 용어도 많지 않고, 어휘 정체성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편이다.

2) 남북 역사 분야 전문용어의 사용 양상

이 연구에서는 남측과 북측에서 차이를 보이는 용어를 중심으로 남북 용어의 이질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남북의 용어가 다를 때 용어를 통합하는 방법은 새로운 용어를 만드는 방법과 기존 용어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전자의 방법은 남북이 합의하여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후자의 방법을 사용하여 통합 방안을 마련해 볼 수 있는데, 이때 어떤 용어를 선택할지 논리적이고 타당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 용어의 차이를 꼼꼼히 살피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역사 분야 전문용어는 ‘인명’, ‘문화재명’, ‘유적지명’ 등의 고유명사가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용어에서도 남북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반세기 이상을 서로 다른 이념과 제도 아래에서 살아온 남과 북은 역사적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이 절에서는 남북이 차이를 보이는 용어들을 특징이 두드러진 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역사적 인물 및 지명

역사적 인물과 관련된 용어는 ‘박영효, 신돌석, 안중근’처럼 남북측이 같거나, ‘양기탁-랑기탁, 유관순-류관순, 이성계-리성계’처럼 두음 법칙에 따른 차이를 보이거나, ‘사도세자-장헌세자’처럼 남북측이 서로 다른 형태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먼저 남북측이 동일하게 쓰는 인물명은 다음과 같다.

- ① 강감찬, 강수, 강희안, 권훤, 경대승, 경순왕, 경애왕, 계백, 계월향, 고건무, 고국양왕, 고국원왕, 고국천왕, 고연수, 고종, 고주몽, 공민왕, 공양왕, 광개우, 광해군, 구진천, 궁예, 근초고왕, 기정진, 김개남, 김굉필, 김구, 김규식, 김부식, 김사미, 김생, 김시민,

김시습, 김옥균, 김유신, 김윤식, 김윤후, 김응서, 김일성, 김정호, 김정한, 김정희, 김조순, 김종서, 김종직, 김좌진, 김춘추, 김통정, 김현창, 김홍도, 김홍집, 남궁억, 남이, 놀지왕, 단군, 단군왕검, 단종, 담징, 당태종, 대도수, 대조영, 덕래, 도선, 도침, 동명왕, 동성왕, 동천왕, 마의태자, 만적, 명림답부, 묘광, 묘청, 문익점, 미천왕, 민종식, 밀우, 박규수, 박연, 박영효, 박위, 박은식, 박정양, 박제가, 박제상, 박지원, 박혁거세, 방정환, 배중손, 백결선생, 법흥왕, 보장왕, 복신, 비류, 비류수, 사미광, 서거정, 서경덕, 서희, 석가모니, 선덕왕, 선왕, 선종, 설총, 성덕왕, 성삼문, 성왕, 성현, 세종, 소배업, 소서노, 소손녕, 소정방, 솔거, 송상현, 수양제, 순종, 시조왕, 신검, 신경준, 신돈, 신돌석, 신립, 신무왕, 신사임당, 신숙주, 신승겸, 신윤복, 신채호, 실성왕, 심정, 안건, 안승, 안중근, 안중식, 안창호, 안향, 양규, 양만춘, 양태사, 어윤중, 연개소문, 영류왕, 영조, 오경석, 온달, 왕건, 왕산악, 왕인, 왕효렴, 우거왕, 우륵, 우왕, 우중문, 원종, 원종, 애노, 원측, 원효, 율슨, 유구, 유길준, 유관, 을두지, 을지문덕, 을파소, 의상, 의자왕, 인종, 일연, 장문휴, 장보고, 장수왕, 장영실, 장인환, 장지연, 장헌세자, 전명운, 전봉준, 전호, 정남, 정도전, 정몽주, 정문부, 정사도, 정선, 정약용, 정여립, 정인홍, 정조, 정중부, 정지상, 정철, 조광조, 조병갑, 조준, 조현, 주몽, 주시경, 지식영, 지주, 철종, 최무선, 최시형, 최영, 최우, 최익현, 최자, 최제우, 최충헌, 최치원, 충선왕, 평강공주, 한무제, 한백겸, 해모수, 허균, 허준, 현종, 혜자, 혜초, 홍경래, 홍대용, 홍범도, 홍영식, 홍의장군, 환웅, 홍덕왕, 홍수

다음으로, 남측과 북측이 어문 규범의 차이를 보이는 인명은 다음과 같다. 왼쪽에 제시한 용어가 남측, 오른쪽에 제시한 용어가 북측 용어이다.

② 권율-권률, 나운규-리운규, 무령왕-무녕왕, 안용복-안룡복, 양기탁-량기탁, 양헌수-량현수, 유관순-류관순, 유득공-류득공, 유성룡-류성룡, 유인석-류린석, 유향-류향, 유형원-류형원, 유흥기-류흥기, 이규경-리규경, 이규보-리규보, 이덕무-리덕무, 이동휘-리동휘, 이문진-리문진, 이방원-리방원, 이범윤-리범윤, 이상설-리상설, 이상재-리상재, 이상좌-리상좌, 이상화-리상화, 이색-리색, 이성계-리성계, 이수광-리수광, 이순신-리순신, 이승훈-리승훈, 이시애-리시애, 이완용-리완용, 이원익-리원익, 이의민-리의민, 이의방-리의방, 이이-리이, 이익-리익, 이인로-리인로, 이인영-리린영, 이자겸-리자겸, 이자성-리자성, 이제마-리제마, 이

제현-리제현, 이종무-리종무, 이준-리준, 이중환-리중환, 이항로-리항로, 임격정-림격정, 임병찬-림병찬, 정인지-정린지, 진성여왕-진성녀왕, 허난설헌-허란설헌, 흥난과-흥란과

③ 가쓰라(남)-가쓰라(북), 도요토미히데요시-도요도미히데요시, 도쿠가와이에야스-도꾸가와, 이토히로부미-이또히로부미, 칭기즈칸-칭기스한, 태프트-타프트

②는 두음 법칙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 용어들이고, ③은 외래어 표기에서 차이를 보이는 용어들이다. 아래 ④는 남북측이 다른 형태의 인명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시한 것이다.

- | | |
|--------------|-----------|
| ④ 광개토대왕-광개토왕 | 진시황-진시황제 |
| 김수로왕-김수로 | 사도세자-장헌세자 |
| 유리왕-유리나사금 | 명성황후-민비 |
| 온조왕-온조 | 의종-의종왕 |

④에서 보면, 북측은 남측보다 ‘왕’이라는 표현을 잘 붙이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북측은 전체적으로 남측보다 감정적인 표현들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데, 교과서에서 보면 남북이 동일하게 쓰고 있는 ‘궁예’를 북측에서는 ‘일목대왕, 외눈같이 대왕’이라고 달리 표현하거나, 남북측이 외래어 표기에서 차이를 보이는 ‘이토히로부미-이또히로부미’에 북측은 ‘놈’이라는 표현을 붙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지명을 살펴보면, ‘고려, 길림성, 안압지, 판문점, 비류수, 간도, 개성, 경성, 독도, 동모산, 몽골, 서라벌, 웅진, 일본, 조선, 한양’ 등은 남북측이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귀주성(남)-구주성(북), 독일-도이쾰란드, 러시아-로씨야, 인도-인디아, 하얼빈-할빈’ 등은 어문 규범의 차이를 보이는 용어들이다. 나라와 관련된 용어들 중에서 특징적인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 |
|---------|------------|
| ⑤ 당-당나라 | 삼국-세나라 |
| 명-명나라 | 삼국시대-세나라시기 |

송-송나라	후삼국시대-후삼국시기
위-위나라	
청-청나라	
수-수나라	

⑤에서처럼 북측은 ‘나라’라는 표현을 추가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났다. 북측은 한자어 ‘삼국(三國)’을 고유어 ‘세나라’로 순화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2) 역사적 사물

남북 역사 용어는 도구, 무덤, 탑, 불상, 유적지 등의 유물 및 유적을 지칭하는 용어에서 차이를 보였다.⁵⁾ 역사 교과서에는 과거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던 도구와 관련된 용어들이 많이 나타났다. 그중에 ‘막새, 가지창, 갈돌, 격지, 골각기, 돌날, 돌 낫, 돌도끼, 돌망치, 돌보습, 돌삽, 돌창, 돌칼, 밀개, 뼈바늘, 뿔팽이, 쇠뇌, 외날찍개, 자격루, 주먹도끼, 청동거울, 청동방울, 가락바퀴, 그물추, 굽개, 석기, 청동도끼’ 등은 남북측이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였다. 다음은 남북측이 다른 형태를 사용하는 용어를 제시한 것이다.

⑥ 민무늬토기-민그릇	팽이형토기-팽이그릇
덧무늬 토기-덧무늬그릇	화분형토기-화분형그릇
구멍무늬토기-구멍줄무늬그릇	붉은간토기-붉은간그릇
빗살무늬토기-새김무늬그릇	

남측에서는 그릇 관련 용어들을 ‘토기’로 지칭하고 있다. 대부분 신석기 시대 및 청동기 시대의 토기들로서, 무늬에 따라 ‘민무늬, 덧무늬, 구멍무늬, 빗살무늬’ 등으

5) 유적 중에서 남북측이 동일한 형태를 보이는 용어는 ‘경복궁, 경주석빙고, 경회루, 광화문, 남한산성, 대동문, 대성산성, 대화궁, 동명왕릉, 만월대, 문묘, 선죽교, 승례문, 안학궁, 용진성, 정족산성, 창경원, 창덕궁, 천리장성, 첩성대, 평양성, 홈경각, 개심사, 금산사, 대웅전, 미륵사, 원각사, 월정사, 개모성, 무위영, 백운동서원, 서원, 선조성, 성균관, 안시성, 영은문, 왕검성, 위례성, 육영공원, 장수산성, 정동행성, 세종원, 종묘, 길림성, 안압지, 판문점, 천문대, 개성성균관, 거꾸집, 공민왕릉, 광범사, 굴포리유적, 궁산유적, 남경유적, 단군릉, 몽촌토성, 반음집, 백암성, 부여성, 순장무덤, 왕건왕릉, 정릉사, 정해공주묘, 포석정’ 등이다.

로 구분하고, 형태에 따라서 ‘팽이(형), 화분형’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러한 무늬나 형태는 민족과 시대의 특색을 보여 준다. 남측의 ‘토기’에 해당하는 용어를 북측에서는 ‘그릇’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처럼 남측은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는 의미의 한자어 ‘토기(土器)’를 쓰고 있는 반면, 북측은 고유어 ‘그릇’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 |
|---|--|
| <p>⑦ 가. 잔석기-세석기
 뎨석기-타제석기
 간석기-마제석기</p> | <p>나. 돌화살촉-돌활촉
 청동화살촉-청동활촉</p> |
| <p>⑧ 세형동검-좁은놋단검
 비파형동검-비파형단검</p> | |
| <p>⑨ 간접떼기-대고떼기
 모루떼기-때려깨기</p> | |

(⑦가)는 돌로 만든 여러 가지 생활 도구를 나타낸다. 남북측 모두 ‘석기(石器)’라는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보통 남측보다 북측에서 고유어를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볼 수 있는데, 석기의 유형에 따른 용어들을 살펴보면 ‘잔석기, 뎨석기, 간석기’처럼 남측이 고유어를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⑦나)의 용어는 화살 끝에 박힌 뿔죽한 쇠를 나타내는데, 남측은 ‘화살촉’, 북측은 ‘활촉’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⑧에서, ‘검’을 나타낼 때에 남측은 재료(동검), 북측은 크기(단검)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⑨는 돌을 떼 내는 방법을 나타내는 용어로, 단단한 뿔이나 뼈 따위의 췌기를 이용하여 격지 따위를 떼 내는 방법을 남측은 ‘간접떼기’, 북측은 ‘대고떼기’로 사용하고 있었다. ‘모루떼기’는 돌을 모루돌에 부딪쳐서 격지를 떼어 내는 방법을 나타내는데, 이를 북측에서는 ‘때려떼기’로 지칭하고 있었다.

남북측 모두 고유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돌갈-돌갈, 돌날-돌날, 돌삽-돌삽, 돌도끼-돌도끼, 갈돌-갈돌, 가락바퀴-가락바퀴’ 등처럼 동일 형태인 경우가 많았다. 북측은 남측보다 고유어를 선호하고, 남측은 ‘토기, 동검’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북측보다 도구의 재료 등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사람이 죽으면 송장이나 유골을 땅에 묻게 되고 그 방식이나 풍습도 시대마다 달라진다.

⑩ 고인돌 - 고인돌무덤

탁자식고인돌 - 키큰고인돌

바둑판식고인돌 - 침촌형고인돌

관산리고인돌 - 관산리제일호고인돌무덤

고인돌은 큰 돌을 몇 개 둘러 세우고 그 위에 넓적한 돌을 덮어 놓은 선사 시대의 무덤이다. ⑩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고인돌과 관련된 용어는 남북의 일치도가 낮은 편이다. 또한 북측에서는 ‘고인돌’과 ‘고인돌무덤’을 혼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⑪ 가. 석총 - 돌무덤

무용총 - 춤무덤

각저총 - 씨름무덤

금관총 - 금관무덤

삼실총 - 세칸무덤

장군총 - 장군무덤

천마총 - 천마무덤

부부총 - 부부무덤

금령총 - 금방울무덤

나. 돌널무덤 - 돌관무덤

돌덧널무덤 - 돌곽무덤

돌무지무덤 - 돌각담무덤

두방무덤 - 두칸무덤

외방무덤 - 외칸무덤

다. 강서고분 - 강서세무덤

고구려고분 - 고구려옛무덤

고구려고분군 - 고구려무덤떼

⑪에서 보면, 남측은 ‘무덤’을 ‘총, 무덤, 고분’으로 다양하게 쓰고 있고, 북측은 ‘무덤’으로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⑪가)에서 남측은 ‘무덤’을 ‘총’으

로 표현하고 대부분 한자어식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⑪나)는 남측과 북측 모두 ‘무덤’으로 표현한 용어들이다. (⑪다)는 남측은 ‘고분’으로, 북측은 ‘무덤’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이다. 일반적으로 ‘총’은 무덤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다른 무덤과 특별하게 구분되는 특징이 있는 무덤에 사용하고, ‘고분’은 과거나 현재의 무덤 중에서 역사적 또는 고고학적 자료가 될 수 있는 무덤에 쓰이며, 그 밖에 ‘능’은 왕이나 왕후의 무덤을 이룰 때 쓴다. 이처럼 ‘무덤’ 관련 용어는 북측은 ‘무덤’으로 통일하고 있는 반면, 남측은 ‘무덤, 총, 고분’을 다양하게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역사 교과서에는 역사적 특성상 불교 관련 유물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중에 많이 출현하는 것이 탑, 불상이다.

⑫ 가. 경주분황사모전석탑-분황사탑

경주불국사다보탑-다보탑

경주황룡사구층목탑-황룡사구층탑

나. 개성경천사지십층석탑-경천사대리석다층탑

부여정림사지오층석탑-정림사사각오층탑

서울원각사지십층석탑-원각사탑

다. 불국사3층석탑-석가탑

현화사7층석탑-개성현화사칠층탑

황룡사9층목탑-황룡사사각구층탑

정릉사8각7층석탑-정릉사팔각칠층탑

월정사8각9층석탑-평창월정사팔각구층탑

⑫는 절에 있는 탑을 나타낸 것이다. (⑫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남측은 ‘경주 분황사 모전 석탑’처럼 ‘지역+절+모양+재료+탑’의 정보들이 용어에 포함되어 있다. 반면에 북측은 남측보다 간략하게 명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⁶⁾ (⑫나)에 제

6) 우리나라의 불교는 주로 소승 불교의 영향을 받아 탑을 쌓을 때에도 홀수로 짓는다. 현존하는 탑 중에서 예외적으로 ‘서울 원각사지 십층 석탑’과 ‘개성 경천사지 십층 석탑’만 짝수 층을 가지고 있는

시된 용어와 같이, 절터에 남아 있는 탑을 남측에서는 ‘개성 경천사지 십층 석탑’처럼 ‘절터’라는 정보를 용어에 드러내고 있다. 반면에 북측은 절터라는 정보가 드러나지 않는다. 남측에서도 (⑫다)처럼 ‘지역’ 정보 없이 표현하기도 한다.

이처럼 탑은 일정한 조어적 형식에 따라 이름이 붙는다. 남측에서는 먼저 ‘지역’을 표시한다. 그리고 탑이 존재하고 있는 절의 이름이 붙는다. 이때 절이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으면 절의 이름이 그대로 붙고, 절이 존재하지 않으면 원래 탑을 소유하고 있었던 절의 이름에 ‘지(地)’를 붙인다. 불국사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절이고, 정립사는 존재하지 않는 절인 것이다. 다음으로 모양 관련 정보가 추가되는데, 보통 탑의 층수를 세어 이름을 붙인다. 그다음으로 탑을 만든 재료의 이름을 붙인다. 돌로 만들었으면 석탑, 나무로 만들었으면 목탑, 벽돌로 만들었으면 전탑, 돌을 벽돌 모양으로 깎아 쌓아 올린 탑은 모전 석탑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어적 형식에서 벗어난 용어도 있다.⁷⁾ 다보탑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 다보탑처럼 특별한 전설이나 신화에서 이름을 따오거나, 원래 탑이 조성될 때의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이름을 부여하지 않는다.⁸⁾

남측은 북측과 달리 ‘경주 불국사-불국사(북), 경주 첨성대-첨성대, 서울 흥인지문-동대문, 경주 옥산서원-옥산서원, 고양 행주산성-행주산성’처럼 지역명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⁹⁾

데 이들은 원나라 라마교의 영향을 받은 탑이다.

- 7) 남측의 문화재명은 문화재청의 고시에 따라 이름이 정해진다. 가장 최근에 변경하여 고시한 명칭이 ‘정식 명칭’이며,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정식 명칭 바로 이전의 명칭을 ‘전 이름’이라고 제시한다. 정식 명칭과 전 이름 외에도 동일한 문화재를 지칭하는 다른 이름들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식 명칭은 ‘경주 태종 무열왕릉비’인데 전 이름은 ‘신라 태종 무열왕릉비’이며, 그 외에 ‘무열왕릉비’, ‘태종 무열왕릉비’도 사용된다.
- 8) 다보탑은 법화경의 내용에 따라 만들어졌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처가 영취산(靈鷲山)에서 이 경을 설파할 때 다보여래의 진신사리(眞身舍利)를 모셔둔 탑이 땅 밑에서 솟아나오고, 그 탑 속에서 소리를 내어 부처의 설법을 찬탄하고 증명하였다”, 불국사 3층 석탑의 또 다른 이름인 석가탑도 법화경의 내용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무영탑은 아사달 신화에서 이름을 따온 것이다(임영태 2017: 482).
- 9) ‘경주 옥산서원-옥산서원, 안동 도산서원-도산사원, 영주 소수서원-소수서원’ 등 서원은 남북측 모두 표기 방식이 일관성이 있다. ‘상’도 ‘공주 공산성-공산성, 고양 행주산성-행주산성, 김포 문수산성-문수산성, 부여 부소산성-부소산성, 서울 풍납동 토성-풍납동토성’ 등처럼 일관되게 표기하고 있다.

- ⑬ 경기연천전곡리유적 - 전곡리유적
 황해봉산지탑리유적 - 지탑리유적
 충남공주석장리유적 - 충청남도공주시장기면석장리유적
 부산영도동삼동유적 - 부산시동삼동유적
 평양상원검은모루동굴유적 - 검은모루유적

⑬은 유적지와 관련된 용어이다. 남측은 행정구역명의 순서에 따라 이름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에 북측은 다양한 유형이 나타나고 있다.

불상의 경우, 남북측이 동일한 형태인 용어는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이다. 남 북측이 달리 나타난 불상 용어는 다음과 같다.

- ⑭ 금동불 - 금동불상
 경주석굴암석굴본존불 - 석굴암석가여래상
 관촉사석조미륵보살입상 - 룡산관촉사돌부처
 서산마애여래삼존상 - 서산마애삼존불

남측에서 불상 용어도 일반적으로 따르는 조어 형식이 있다. 먼저 불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과 절의 이름을 붙인다. 이때 절이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으면 절의 이름이 그대로 붙고, ‘서산 마애여래삼존상’처럼 절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면 불상이 위치한 지역의 이름을 붙이기도 하며 지역의 이름도 불명확할 때는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불상이 만들어진 재료의 이름을 붙인다. 돌로 만들어진 입체 불상에는 석조, 금동으로 만들어진 금동, 나무로 만들어진 입체 불상에는 목조, 바위에 붙어 있는 불상에는 마애라는 이름을 붙인다. 다음으로는 부처의 이름을 붙인다. 석가모니 부처는 석가 또는 여래의 이름을 붙이고, 아미타 부처, 비로나자 부처, 미륵보살 등의 이름을 붙인다. ‘불(佛)’이라는 단어는 부처를 줄인 말이다. 다음으로 부처의 자세나 모습을 나타낸다. 앉아 있으면 좌상, 서 있으면 입상, 반쯤 가부좌를 틀고 있는 반가 등의 이름을 붙인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을 따르는 정식 명칭이 아닌 ‘전 용어’들도 사전에 다양하게 등재되어 쓰이고 있다.

(3) 역사적 사건

역사 분야에는 역사적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남과 북은 동일한 역사적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남과 북이 동일한 역사를 공유하고 있지만, 분단의 시간과 서로 다른 체제 및 이념에서 오는 역사 인식의 차이는 점차 커져 가고 있다. 역사적 사건 관련 용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⑮ 가. 헤이그특사사건-헤그밀사사건
 명성황후시해사건-민비살해사건
 오페르트도굴사건-남연군무덤도굴사건

- 나. 여수순천10·19사건-려수군인폭동
 제너럴서면호사건-서면호격멸

⑮에 제시된 용어들은 남측에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용어들이다. ‘헤이그특사사건’에서 ‘특사’를 북측에서는 ‘밀사’로 표현하고 있다. ‘명성황후시해사건’을 북측에서는 ‘민비살해사건’으로 ‘명성황후’를 ‘민비’로 낮추어 명명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시해’와 ‘살해’라는 용어에서도 드러난다. 남측의 ‘오페르트도굴사건’을 북측은 ‘남연군무덤도굴사건’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남측은 도굴한 인물을 제시하고 북측은 무덤의 주인인 대원군의 부(父) 남연군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⑮나)에서 남측의 ‘여수순천10·19사건’을 북측에서는 ‘폭동’으로 규정하고 있고, 남측의 ‘제너럴서면호사건’을 북측에서는 사건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⑯ 가. 물산장려운동-물산장려운동
 애국계몽운동-애국문화운동
 민족운동-부르쥬아민족운동
 자유민권운동-부르쥬아민권운동

- 나. 3·1운동-삼일인민봉기
 5·18민주화운동-광주인민봉기

다. 의병운동-의병투쟁

반미운동-반미구국투쟁

6·10만세운동-륙십만세시위투쟁

고구려부흥운동-고구려고국회복투쟁

라. 광주학생항일운동-광주학생사건

동학농민운동-갑오농민전쟁

묘청의서경천도운동-묘청의정변

⑩에서는 남측에서 ‘운동’의 개념으로 바라본 사건들을, 북측에서는 ‘운동, 봉기, 투쟁, 전쟁, 정변’ 등 다양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⑪ 가. 왕규의난-왕규의반란

김헌창의난-김헌창의반란

이시애의난-리시애의반란

이자겸의난-리자겸의반란

조위충의난-조위충의반란

나. 만적의난-만적의폭동

망이망소이의난-망이농민폭동

황건적의난-황건농민폭동

황소의난-황소농민폭동

임오군란-임오군인폭동

다. 이시애의난-함경도농민전쟁

홍경래의난-평안도농민전쟁

임진왜란-임진조국전쟁

김사미와효심의난-경상도농민군의투쟁

⑪에서는 남측이 ‘난(난리)’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건들을 북측에서는 ‘반란, 폭동, 전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들을 ‘지배 계층에 반발한 사건, 집단적 폭력을 일으킨 행위, 무력적인 싸움’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⑫ 농민봉기-농민폭동

진주농민봉기-진주농민폭동

임술농민봉기-진주농민폭동

고부농민봉기-고부농민폭동

- | | | |
|------|--|--|
| ⑰ | 무장투쟁 - 무장활동
무장독립투쟁 - 독립군운동
항일무장투쟁 - 반일무장항쟁 | 부마민주항쟁 - 시월민주항쟁
삼별초의항쟁 - 삼별초군의투쟁
암태도소작쟁의 - 암태도농민투쟁 |
| ⑳ 가. | 나당전쟁 - 신라 · 당전쟁
6 · 25전쟁 - 조국해방전쟁 | 나. 노량해전 - 로랑대첩
노량해전 - 로랑바다싸움 |

⑱은 남측에서 ‘봉기’로 규정하고 있는 사건을 북측에서는 ‘폭동’으로 보고 있으며, ⑲는 남측에서 ‘싸움/다툼’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건들을 북측에서 달리 표현하고 있는 용어들이다. (㉑가)는 남북측 모두 ‘전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건들을 제시한 것이고, (㉑나)는 남측에서 ‘해전’으로 정의하고 있는 사건들을 북측에서 ‘대첩, 싸움’으로 규정하고 있다.

- | | | |
|------|---|--|
| ㉑ 가. | 고창전투 - 병산전투
봉오동전투 - 봉오골전투
평양성전투 - 평양성해방전투
부산포전투 - 부산대첩 | 나. 안시성전투 - 안시성싸움
왕검성전투 - 왕검성싸움
천문령전투 - 천문령싸움 |
|------|---|--|

- ㉒ 살수대첩 - 살수싸움/살수에서의대승리
명량대첩 - 명량바다싸움/명량대승리
귀주대첩 - 구주성싸움/구주대승리
진주성대첩 - 진주대첩/진주대승리
한산도대첩 - 한산도앞바다싸움/한산대승리/한산대첩

㉑에서는 남측이 ‘전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건들을 북측이 동일하게 ‘전투’로 표현하거나 ‘싸움’으로 순화하고 있는 경우이다. ㉒는 남측에서 크게 이긴 사건임을 나타내는 ‘대첩(大捷)’을 북측에서는 고유어 ‘싸움’으로 표현하거나, 쉬운 말로 바꾸어 ‘대승리(大勝利)’로 표현하고 있다.

㉓ 가. 기해박해 - 기해사옥

신유박해 - 신유사옥

병인박해 - 병인사옥

나. 요동정벌 - 료동원정

쓰시마섬토벌 - 쓰시마원정

(㉓가)는 남측이 ‘박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해로운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북측은 ‘중대한 범죄를 다스린 사건’인 ‘사옥’으로 규정함으로써 무게를 더하고 있다. (㉓나)에서는 남측이 ‘정벌, 토벌’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나 북측은 먼 곳으로 싸우러 나간다는 의미의 ‘원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역사적 사건 관련 용어를 살펴본 결과, 역사적 사건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하나는 사건을 일으킨 ‘인물+사건의 성격’이고, 다른 하나는 사건이 일어난 ‘시기+사건의 성격’이고, 마지막으로 사건이 일어난 ‘지역+사건의 성격’이다.¹⁰⁾ 남북의 차이를 살펴보면, 북측은 투쟁 중심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¹⁾ 교과서 내용이나 분량 면에서도 북측이 남측보다 역사적 사건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고, 남측에서 ‘난’ 또는 ‘운동’으로 표현되는 사건들을 북측에서는 ‘투쟁, 전쟁, 폭동’ 등으로 부르고 있었다.¹²⁾

(4) 역사적 제도

역사적 제도 중에 남북측이 동일한 형태를 사용하는 용어는 ‘전매제도, 신분제도, 관료제도, 보통경찰제도, 징병제, 골품제, 기인제도, 설점수세제, 전세, 관수관급제, 금납제, 군주제, 대한민국제, 일부일처제, 지주전호제, 토지신고제’ 등의 제도, ‘경종법, 모내기법, 지조법, 함영법, 관법, 상감법, 수미법, 영정법, 오가작통법, 과전법, 균역법, 노비안검법, 대동법, 관심법, 도조법, 시비법, 직전법, 진대법, 치안유지법, 타조법, 호패법, 종두법, 노비종모법, 사창법, 사회주의헌법, 호포법’ 등의 법, ‘민족말

10) 최근 들어 피지배 계층의 저항운동에 대해 역사적으로 적극적으로 평가를 하려는 시도가 많으나 아직도 개인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당시대의 시대적 상황을 역사적 용어가 제대로 담아 내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윤경오 1993 : 28)

11) 지배층에 대한 반란은 농민들의 투쟁이며 인민들의 전쟁으로서 역사 발전의 필연 과정으로 보인다. 즉, 북측은 역사의 동인을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회복하기 위한 투쟁에 두고 있는 것이다.

12) ‘폭동’이라는 말은 남측에서는 그 사건의 의의가 별로 중요하지 않을 때 사용되지만 인민 대중의 투쟁을 역사 발전의 동인으로 보는 북측에서는 그 사건을 높이 평가할 때 사용된다(윤세철 1993 : 220).

살정책, 쇄국정책, 개화정책' 등의 정책이 있었다.

남북측이 차이를 보이는 용어 중에 특징적인 것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㉔ 가. 과거제 - 과거제도	나. 관등제도 - 벼슬등급제도
군현제 - 군현제도	상수리제도 - 상수제도
정전제 - 정전제도	관료공복제도 - 공복제도
군전제 - 군전제도	16관등제도 - 십륙벼슬등급제도
봉건제 - 봉건제도	
봉수제 - 봉수제도	다. 환곡제도 - 환정
부병제 - 부병제도	결부제 - 결부법
호포제 - 호포제도	독서삼품과 - 독서삼품제
헌병경찰제 - 헌병경찰제도	진관체제 - 진관제도

(㉔가)에서 보면, 남측은 '-제'로, 북측은 '제도'로 일관되게 표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㉔나)는 남북측 모두 '제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나 명칭이 다른 용어들이며, (㉔다)는 제도와 관련하여 남북이 차이를 보이는 용어들을 제시한 것이다.

4. 결론: 남북 용어 통합을 위한 제언

지금까지 역사 분야의 남북 대응어를 중심으로 용어의 이질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남북의 용어는 특히 역사적 사건이나 사물을 나타내는 데에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남과 북이 반세기 이상을 서로 다른 정치 이념과 사회 제도 속에 살아 오면서 역사 인식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언어란 인간의 의식과 사고를 반영하기 때문에 남북 분단의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남북 언어의 이질화가 심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또한 큰 문제이다. 그러므로 언어 문제는 지금부터 하나씩 논의되어야 하며, 통일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계속 연구되어 나아가야 한다.

남북 역사 용어의 이질화 양상을 살펴보면, 남북 용어를 통합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 용어 통합을 위한 제언을 해 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립적이고 올바른 개념이 정립되도록 용어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측은 분단 이후 냉전적 구조 속에서 이데올로기의 심화와 이질화 현상이 나타났다. 남북측 역사 용어는 양 사회가 지향하는 이념적 특징에 따라 양분 가능할 정도의 이질성을 보이고 있다. 남측과 달리 북측은 김일성·김정일에 관한 혁명력사와 혁명 활동 등을 배우고, 공산주의 정치 이념에 근거해서 구성된 역사를 익혔다. 이처럼 역사 분야는 현존 사회가 지향하는 이념 체제를 반영한다. 따라서 역사 분야는 중립적이고 올바른 개념이 정립되도록 역사 용어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역사적 개념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의미와 범위가 변한다. 또한 역사 분야는 다른 분야와 달리 역사가의 해석, 자료의 성격, 사회상, 시간 등에 의하여 역사적 편견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 남측의 ‘여수순천10·19사건’을 북측에서는 ‘려수군인폭동’으로 규정하고, ‘3·1운동, 5·18민주화운동’을 북측에서는 ‘삼일인민봉기, 광주인민봉기’로 규정하고 있다. 남측의 ‘의병운동, 6·10만세운동’을 북측은 ‘의병투쟁, 룡십만세시위투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왕규의난-왕규의반란, 만적의난-만적의폭동, 이시애의난-함경도농민전쟁, 농민봉기-농민폭동, 무장투쟁-무장활동, 안시성전투-안시성싸움, 요동정벌-료동원정’ 등 남측과 북측이 역사적 사건을 바라보는 인식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역사 용어를 통합할 때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중립적이고 올바른 개념이 정립되도록 용어 통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내포와 외연이 명료하게 드러나는 용어로 통합해야 한다. 통합된 용어는 개념이 함축하고 있는 속성이 잘 드러나야 한다. 또한 지시하는 대상을 정확히 가리킬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남측의 ‘여수순천10·19사건’을 북측에서는 ‘려수군인폭동’으로 규정하고, 남측의 ‘오페르트도굴사건’을 북측에서는 ‘남연군무덤도굴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남측의 ‘명성황후시해사건’을 북측은 ‘민비살해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남측과 북측이 달리 사용하는 용어 중에서, 내포된 개념을 좀 더 명료하게 나타낼 수 있는 용어로 통합해야 외연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다. 용어를 통합할 때 가급적이면 개념의 인지도가 높은 용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어는 언어 사용자들이 언어의 개념을 잘 파악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을 때 그 생명력을 유지한다. 용어는 의미적인 측면에서 개념을 명료히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어휘 체계 내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용어로 통합해야 한다. 실질적인 생명력을 지닌 어휘는 모두 제 나름대로의 의미 영역을 가지고 다른 용어와 차별성을

지낸다. 어휘가 실질적인 언어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면, 이들은 모두 제 나름의 의미 영역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통합 용어로 선정되는 어휘는 어휘 체계 내에서 개념이 정확해서 다른 것과 충돌하지 않아야 한다. 다시 말해 용어는 자신의 의미 영역을 가지고 유사한 의미를 갖는 어휘와 차별적인 개념을 지녀야 한다. 또한 역사 용어는 언어의 형성이나 속어의 형성 등이 가능하여 모든 문맥에서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어야 하고, 반의 관계, 상하의어 관계 등에서도 자연스럽게 대치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토기’는 제작 방식에 따라 ‘간토기’, 동물 모양에 따라 ‘짐승토기’, 무늬의 유무에 따라 ‘민무늬토기’ 등이 있다. ‘간토기’의 하위어로 ‘붉은간토기, 검은간토기’ 등이 있다. 이처럼 하나의 용어가 그 어휘 체계 속에서 다른 어휘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의미적인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이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의미를 고려하여 용어를 선정할 때에도 용어의 조어법에 맞도록 해야 한다. 남측과 북측에서 사용하고 있는 ‘뿔족끝찍개’와 ‘뿔족끝석기’는 모두 ‘부사’와 ‘명사’가 결합된 형태로 자연스럽게 못한 조어법을 보여 준다. 언어가 인간에 의해 사용됨으로써 그 생명력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휘는 문장의 구성 성분이 됨으로써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용어의 문법적인 기능과 다를 경우 아무리 의미를 명료하게 표현하더라도 그 사용이 쉽지 않다. 따라서 용어를 통합할 때에는 의미와 더불어 문법적인 측면이나 화용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남북 용어의 통합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일은 통일이 되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준비 단계이다. 통일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남북의 언어 이질성이다. 그러나 남북측의 이질화된 언어 문제를 논의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아직까지 광범위하게 유지되고 있는 동질성이다. 남북 언어의 공통점은 언어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남북 용어 통합은 남북이 동질성을 바탕으로 이질성을 회복하여 진정한 소통을 해 나가기 위한 핵심 과제인 것이다.

■ 참고문헌

1. 교과서

- 김덕수, 『중등 역사 ①』, 천재교육, 2018.
 _____, 『중등 역사 ②』, 천재교육, 2018.
 정재정, 『중등 역사 ①』, 지학사, 2018.
 _____, 『중등 역사 ②』, 지학사, 2018.
 주진오, 『중등 역사 ①』, 천재교육, 2018.
 _____, 『중등 역사 ②』, 천재교육, 2018.
 정재정, 『고등 한국사』, 지학사, 2018.
 _____, 『고등 한국사』, 천재교육, 2018.
 교육부, 『편수 자료 II - 인문·사회과학 / 체육·음악·미술 편』, 교육부, 2018.

- 김광수·최영희, 『조선력사』_초급중학교 2, 교육도서출판사, 2014.
 리인형, 『조선력사』_고등중학교 1, 교육도서출판사, 2002.
 _____, 『조선력사』_고등중학교 6, 교육도서출판사, 2002.
 _____, 『조선력사』_중학교 1, 교육도서출판사, 2008.
 리태영, 『조선력사』_고등중학교 2, 교육도서출판사, 2002.
 오영철, 『조선력사』_고등중학교 3, 교육도서출판사, 2002.
 오영철·정성철, 『력사』_고급 1, 교육도서출판사, 2013.
 _____, 『력사교수참고서』_고급중학교 1, 교육도서출판사, 2014.
 저자불명, 『조선력사』_중학교 6, 교육도서출판사, 2008.
 제갈명, 『조선력사』_고등중학교 5, 교육도서출판사, 2002.
 차영남·강국모, 『조선력사교수참고서』_초급중학교 1, 교육도서출판사, 2013.
 차영남·박영철, 『조선력사』_초급중학교 1, 교육도서출판사, 2013.
 한영찬, 『조선력사』_고등중학교 4, 교육도서출판사, 2002.
 _____, 『조선력사』_중학교 4, 교육도서출판사, 2008.
 한영찬·리금옥, 『력사』_고급중학교 2, 교육도서출판사, 2014.

2. 단행본류

- 강현화 외, 『전문용어 표준화 제도 정비를 위한 정책 연구』, 국립국어원, 2009.
 고석주 외 『전문용어연구 - 정리현황과 과제』, 태학사, 2007.
 국립국어원, 『21세기 세종계획. 전문용어의 정비 연구보고서』,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원, 2005.
 국사편찬위원회, 『남북 역사용어 및 영문표기 기초조사』, 국사편찬위원회, 2002.
 김광수, 『남북한 전문용어 비교 연구』, 역락, 2004.
 김문오, 『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비교 연구 1』, 국립국어원, 2007.
 김선철, 『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비교 연구 2』, 국립국어원, 2008.

- 김정은 외, 『남북한 언어 연구』, 박이정, 1997.
- 김진용 외, 『전문용어 구축 연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7.
- 신중진 외, 『2015년 남북 기초 전문용어 분석』, 국립국어원, 2015.
- _____, 『2016년 남북 전문용어 구축』, 국립국어원, 2016.
- _____, 『남북 국어 분야 전문용어 구축』, 국립국어원, 2017.
- _____, 『남북 역사 분야 전문용어 구축』, 국립국어원, 2018.
- 양명희, 『북남 대역 사전을 위한 기초 연구』, 국립국어원 연구 용역 보고서, 2003.
- 최기선 외, 『전문용어센터 운영: 전문용어 표준화를 위한 기반 조성』, 한국과학기술원, 2000.
- _____, 『전문용어연구 1』, 흥릉과학출판사, 2000.
-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학술 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 결과보고서』, 한국연구재단, 2007.
3. 논문
- 권내현, 『북한의 한국어 연구와 남한 학계의 인식』, 『역사교육논집』 62, 역사교육학회, 2017, 321~343면.
- 권성아, 『남북 교과서를 통해 본 전문용어의 공통점과 차이점: 국사 교육을 중심으로』, 『새국어생활』 17권 1호, 국립국어원, 2007, 53~67면.
- 권재일, 『남북한의 언어학 전문용어 표준화 방안 연구』, 『한글』 274, 한글학회, 231~266.
- 김문오, 『전문용어 정비의 방향』, 『제42회 한말연구학회 발표자료집』, 한말연구학회, 2006, 127~182면.
- 김유진·신중진, 『남북 수학·과학 교과서에 나타나는 전문 용어 분석』, 『동아시아문화연구』 64,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6, 131~159면.
- _____, 『남북 자연과학 심화 전문용어의 형태적 분석』, 『겨레어문학』 58, 겨레어문학회, 2017, 97~136면.
- 김한샘, 『전문용어 정비의 현황과 과제』, 『한말연구』 23, 한말연구학회, 2008, 93~120면.
- 신중진·이성우, 『기초 전문용어의 개념 확립을 위한 시론』, 『한국언어문화』 59, 한국언어문화학회, 2016.
- 엄태경, 『남북 수학 기초 전문용어 통합을 위한 제언』, 『한국사전학』 26, 한국사전학회, 2015, 7~39면.
- 엄태경·신중진, 『심화 전문용어의 조어 분석과 그 실제 - 물리 분야를 중심으로 -』, 『한국언어문화』 60, 한국언어문화학회, 2016, 165~190면.
- 오세진·신중진, 『남북 체육 기초 전문용어의 어종 분석』, 『우리말글』 70, 우리말글학회, 2016, 25~47면.
- 윤경오, 『1980년대 남북한 중등학교 역사교과서의 특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28면.
- 윤세철, 『북한 역사 교과서에 나타난 국사 인식』, 『사대논총』 46, 1993, 220면.
- 이대성, 『남북 언어 통합 사업의 현황과 과제』, 『겨레말 통합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발표자료집』, 국립국어원·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2015, 187~198면.
- 이현주, 『전문용어 연구의 이론과 실제』, 『한국사전학』 26, 한국사전학회, 2015, 40~67면.
- _____, 『전문용어학의 이론적 토대를 위한 개념 연구』, 『제42회 한말연구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자료집』, 한말연구학회, 2015, 209~221면.
- 임영태, 『역사용어의 구조적 학습 방안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7권 제21호, 2017, 471~489면.
- 전은진·신중진, 『남북 국어 교과 전문용어의 조어 분석』, 『동아시아문화연구』 71,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7, 13~32면.

정연진, 『영어학을 위한 ISO 전문용어 표준』, 『통번역학연구』 17권 4호,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연구소, 2013.

정태현, 『남북 역사인식 연합'을 위한 역사학 교류』, 『역사비평』 99, 2012, 314~340면.

정태현, 『남북 역사인식의 상호 변화와 '남북역사용어공동연구'를 통해 본 역사인식 연합의 전망』,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논문집』 14,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2011, 7~33면.

한용운, 『남과 북의 사전』, 『새국어생활』 25권 2호, 국립국어원, 2015, 25~44면.

허재영, 『전문용어 정책의 역사』, 『어문학』 125, 한국어문학회, 2014, 117~145면.

4. 사전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웹사전 :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2019.

_____, 『우리말샘(웹사전 : <https://opendict.korean.go.kr/main>)』, 2019.

백과사전출판사, 『광명백과사전 1』, 백과사전출판사, 2007.

사회과학원언어연구소, 『조선말대사전』, 동광출판사, 1992.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증보판)』, 사회과학출판사, 2006.

5. 외국 논저

ISO 704, Terminology work—Principles and methods, 2000.

ISO 860, Terminology work—Harmonization of concepts and terms, 2007.

ISO 1087-1, Terminology work—Vocabulary. Part 1 : Theory and application, 2000.

ISO 10241, International terminology standards—Preparation and layout, 1992.

ISO 22134, Practical guidelines for socioterminology, 2007.

ISO/IEC Guide 2 Standardization and related activities—General vocabulary, 2004.

Heterogeneous Aspects of Terminology in North and South Korea History

Jeon, Eun-jin* · Shin, Jun-j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heterogeneity of terminology in North and South Korea History. This study, which analyzes the terminology of North and South Korea history curriculum and examines the heterogeneous pattern, ultimately aims to standardize terminology and improve the efficiency of North and South Korea integrated curriculum by preparing an integrated plan of North and South Korea terms. For this final goal, this study examined the heterogeneity of North and South Korea terminology, focusing on terms used in North and South Korea history textbooks. In terms related to historical figures, there were cases where North and South sides were the same, showed differences according to Initial law, and North and South sides used different forms of terms. Terminology related to historical objects differed significantly in tools, tombs, towers, Buddha statues, and historical sites. Differences in terms related to historical events also appeared, with the North appearing to emphasize a struggle-oriented history. In terms of textbook content and volume, the North side is dealing with historical events more heavily than the South side, and the events that are expressed as ‘nan’ or ‘movement’ on the south side are called ‘fight, war and riot’ on the North side.

Keywords : history, textbook, terminology, heterogeneity, North and South Korea

* Hanyang University

** Hanyang University